

P16

시설재배에서 발생되는 가지 잣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에 대한 효과적인 생물농약 개발 및 그 방제효과

김철승, 이재필, 정순재, 하상영, 문병주, 송주희, 임은경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부.

가지 잣빛 곰팡이병의 병원균에 대한 길항세균을 선발하기 위해 가지 재배하우스내의 균권토양과 잎에서 세균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Bergey's manual과 API system으로 동정한 결과 W1균주는 *Bacillus subtilis*, P99균주는 *Pseudomonas putida*로 각각 동정되었다. 선발한 길항세균을 제제화 하기 위하여 대량배양 배지로 비지와 대두박 배지를 선발하고 여기에 콩가루, 옥수수 전분, 찹쌀가루, 비지가루 등의 고분자 물질을 첨가하여 수화제 형태의 생물농약으로 제조하였다. 제조한 생물농약의 생육상내 방제 효과를 하우스내 포트에서 검정한 결과 공시한 6제제중 제제간의 유의성은 없으나 *P.putida* P99균주로 제조한 P99S와 P99B제제의 방제가가 90.4%, 96.1%로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B. subtilis* W1.균주로 제조한 BSB와 BSD로 80.8%, 80.3%로서 이프로 수화제의 72.6%보다 높았다. 또한 생물농약의 농도별 방제효과 검정에서는 300배로 희석하여도 이프로 수화제와 유사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